과거와 현재, 기술과 예술이 하나된 '아시아 문화마루'

최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 인근에 '쿤스트할레 광주'가 문을 연데 이어 아시아 문화정보원 준비관이 오는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14년 위용을 드러내게 될 문화전당은 신 개념의 복합문화시설로 민주평화 교류원, 문화창조원, 아시아 문화정보원, 아시아 예술극장, 어린이 지식문화원 등 5개원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지난 8월 말 첫선을 보인 쿤스트할레 광주가 지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아시아 문화 수집과 연구, 창조·교육·향유 등이 어우러지는 이들 5개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광주문화수도의 미래를 이끌 문화전당의 핵심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5회에 걸쳐 미리 만나본다.

지난 8월 말 개관한 '쿤스트할레 광주'(한글명· '아시아 문화마루')'는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제공〉

(1) 쿤스트할레 광주

컨테이너 박스 활용…예술작품 쇼케이스
장르의 경계 허문 실험적 문화공간 호평

'Art is not created by the artist(예술은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 검정색 바탕에 붉은색의 영문글씨가 선명한 컨테이너 박스가 시선을 끈다. 바로 지난 8월31일 개관한 '쿤스트할레 광주'(한글명 아시아 문화마루)의 안내간판이다. 사뭇 도발적인 인상을 풍기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쿤스트할레 광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단장 이병훈)이 오는 21014년 개관하는 문화전당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 설계한 쇼케이스다. 2014년 정식 개관에 앞서 굳이 쿤스트할레 광주를 선보인 이유는 세계에 유례없는 복합적인 개념의 문화전당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언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오감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우선 쿤스트할레 광주는 전시공간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렸다. 기존의 건축개념을 떠나 재활용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3층높이의 성벽처럼 쌓았다. 규모는 건축면적 520㎡(158평)에 연면적 1,019㎡(309평)으로 검정색의 투박한 컨테이너 박스가 쇼킹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4각 입방체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광장을 중심으로 마치 성벽처럼 둘러쳐지면서 중앙에 매우 단순하고 견고한 형태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만들어졌다. 더불어 컨테이너 박스의 회랑을 따라 소규모 도서실, 교육 공간,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중앙 홀에서는 영상·무용·소리·첨단미디어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연들이 개최되고, 전시실과 뒷마당(아트야드)에서는 첨단과학,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국제적 작가들의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 공간의 옥상은 긴 회랑처럼 연결되어 전당의 공사 상황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겸하며, 산책하듯이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소규모 도서관이 있어 세계 각국의 예술 관련 도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쿤스트할레 광주의 '색깔'은 건물 안에 있다. 이곳에서 보여주는 예술작품들은 기존 예술계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장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과거와 현재, 기술과 예술이 융·복합된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서브컬처'가 '통하는' 공간으로 국내외 젊은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쿤스트할레에서 만나는 서브컬처는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창조적 예술문화로, 스트리트아트, 그래픽디자인, 클럽문화, 인디뮤직, 비디오아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위적 패션 등이다.

현재 개관기념전으로 열리고 있는 스위스 아트그룹 이토이(E-Toy)의 전시회 'Leaving Reality Behind…'(11월 7일까지)는 적극적인 예술소비와 생산의 관계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E-Toy 그룹은 1990년대 인터넷 문화 개척자로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예술과 접목시킨 독특한 작업으로 1996년 알스 일렉트로니카 골드 니카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광주전에서는 스티로폼 공 16개를 연결해 디지털 정보를 나누고 인체의 동작에 반응하는 '타마타'를 비롯해 '미션 이터너티' '이토이 브루드' 등 실험적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병훈 추진단장은 "쿤스트할레 광주는 '아시아 문화마루'라는 한글이름에 걸맞게 아시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오는 2014년 문화전당 개관까지 광주 시민들의 문화체험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개관. 매주 월요일은 휴관. (062)236-0730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관객과 호흡하는 역동적 예술 보여주겠다"

'쿤스트할레' 주역 톰 뷔쉐만·크리스토프 프랑크

"쿤스트 할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기존의 미술관이 주로 소장가치가 높은 컬렉션을 전시한다면 쿤스트할레는 관람객들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역동적인 예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말 '쿤스트할레 광주' 개관기념 파티에서 톰 뷔쉐만 (Tom Bueschemann·플래튼 쿤스트할레 대표·사진 왼쪽)은 "쿤스트할레가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생소한 개념의 '플래튼 쿤스트 할레'(플래튼)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에는 톰 뷔쉐만과 크리스토프 프랑크(Christoph Frank)라는 두 명의 문화운동가가 있었다. 지난 2000년 두 사람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베를린의 미테(Mitte)지구에 복합문화운동을 내세운 '플래튼 쿤스트할레'라는 사무실을 냈다.

이들의 베를린 '입성'이 화제가 된 건 다름 아닌 사무실 건물이었다. 검정색 선박컨테이너 4개를 조립해 만든 칙칙한 외양은 통독 후 지어진 모던한 건물과 콘크리트 양식의 옛 동독 건축물 '플라텐바우(Plattenbau)'가 어우러진 도시의 경관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선박회사의 창고나 사무실쯤으로 쓰일 것 같은 건물 안에선 날마다 공연과 전시회, 퍼포먼스 등 한바탕 난장이 펼쳐졌다. 주류문화에서 대접받지 못한, 이른바 '서브컬쳐'(하위문화)였다. 기존의 갤러리나 공연장, 미술관에서는 볼 수 없는 톡톡 튀는 문화는 순식간에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다.

뷔쉐만과 프랑크가 플래튼을 추켜 든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하위문화와의 만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기존의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는 미디어 아트, 그래픽 디자인,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등의 하위문화를 좀처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쿤스트할레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에 4000여명의 예술가, 커뮤니티와 연결된 네트워크다. 이 같은 인적 교류를 매개로 이제 광주에서도 각국의 역동적인 문화들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박진현 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